

* 송기영

목차

Abstract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I. 정소산류 검무의 전승배경
 - III. 정소산류 검무의 특성
 - IV. 정소산류 검무의 전승가치
 - V. 결론
- 참고문헌

* 대구가톨릭대학교 무용·공연예술학 박사

논문투고일 : 2015.01.30.

심사일 : 2015.02.28.

게재확정일 : 2015.03.10.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Jeong So-san's sword dance

Song, Ki-you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is study is conducted to help in establishing the organization system of Jeong So-san's sword dance, and furthermore to preserve and hand down regional traditional culture, based on the historical values recognized.

When the characteristics of Jeong So-san's sword dance of Daegu area and its transmission value are studied, it is found that Jeong So-san's sword dance of Jeong, So-san who was a female musician of the royal court and in charge of Yeoryeongjeongjae at the court, used Hansam as an element of the court dance. The dance costume consists of Jeonrip(felt hat) decorated with flowers and has Jeong So-san's sword dance's own unique form, unlike other sword dances' costumes. Besides, two female dancer appear during the hand dance in a sitting posture and this is Jeong So-san's sword dance's own unique style which is differentiated from other sword dances.

In addition, Jeong So-san's sword dance apply for registration as an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of Gyeongbuk Province in 1967 and is recognized for its cultural value after deliberation. Thus, it is thought that its transmission value has validity, sufficiently.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value of Jeong So-san's sword dance which is based on each region and preserve and pass down this.

key words > sword dance, Jeong So-san's sword dance, characteristics, value, Jeong So-san
주요어 >> 검무, 정소산류 검무, 특성, 전승가치, 정소산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조선후기 정재는 교방정재와 상호 연관성을 갖고 존재하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교방은 지방 문화의 근거지로서 후에 권번으로 이어지면서 오늘날 각 지방의 춤 전승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토대가 바탕이 되어 오늘날 전국적으로 다양한 유파와 종목이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단 교방에서의 정재가 그대로 전승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춤이 여러 지역에서 개성적으로 발전하였다. 정재 중 검무는 신라시대 여러 문헌기록이나 고구려에 전하는 유물, 유적의 흔적에서 검무의 역사적 연원의 오래됨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검무는 고려, 조선을 거쳐 궁중 춤의 하나로써 형식상의 변모를 거쳤지만, 우리의 전통춤으로써 굳건한 자리를 지켜왔다(성기숙, 2005 : 140).

궁중정재의 하나로 조선후기 각종 연향의 공연 종목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예술적으로 한층 다듬어지고 세련되어진 검무는 궁중 연향에 참가하기 위해 궁중으로 선상選上된 각 지방 교방의 기녀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전파되면서 각 지방의 독특한 특색을 담은 현재의 향제鄕制여기검무 양식을 파생시켰다(임수정, 2006 : 2).

우리 전통춤 중 가장 먼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춤이 바로 검무이다. 1968년 진주검무가 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었고 그 후 통영승전무 속에 삽입돼 있는 통영검무가 지정되었다. 그만큼 검무가 문화재적 가치판단에 준하는 독자성과 희소성, 역사적 지속성 등에 부합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성기숙, 2005 : 140).

검무는 각 지방마다 지역적 특성을 함축한 고유한 춤 형식의 바탕 하에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전승 되어 오고 있는데 지역 전승적 성격이 농후하기 때문에 각 지역을 배경으로 전승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검무의 보전, 전승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모든 검무는 각 지역마다 그 특색을 가지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균등한 시각과 자료로써 그 가치가 비교 연구되어왔다.

한편 대구 근대 무용의 전통과 맥을 전승, 보존해 왔다고 할수 있는 정소산은 대정권변 하규일의 문하생으로서 검무를 포함한 궁중무 전반을 교육받아온 인물이기도 하다. 정소산은 1920년대 이후 대구로 낙향하여 사설무용교습소를 운영하며 후진양성에 주력했다. 특히 달성권변 춤선생으로 있던 시절에는 검무를 주로 가르쳤다.

이 검무는 현재 정소산의 제자 백년옥을 통하여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영남 지역의 검무에 관한 연구(황미숙, 2001; 김영란, 2006; 임수정, 2007; 서지연, 2008; 배계영, 2010 등)와 정소산의 예술활동에 대한 연구(김죽엽, 2013; 김수영, 2012; 송기영, 2011)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소산류 검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구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정소산류 검무의 특성과 전승가치를 밝히고자 한다.

II. 정소산류 검무의 전승배경

정소산류 검무는 한말 궁중에서 여령정재를 담당하였던 궁중여악출신인 정소산¹⁾(1904~1978)에 의해 전승되었다. 정소산류 검무의 전승자인 정소산은 처음에는 당시 명무로 알려진 김수희 여사에게 배웠지만, 당대의 명인으로 손꼽혔던 법무의 일인자 이왕직아악부 학감 하규일(1863~1937) 문하에 1921년 17세 때 입적하여 19세 때 정재를 배웠다고 한다.

정소산은 궁중무용을 평상시에 법무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였으며, **신문 기사 내용을 보면 하규일 문하생으로 있는 권번시절부터 법무라고 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²⁾. 정소산은 한일합방이후 궁중의 여악제도가 폐지되자 다양한 고전무용을 배우고 동시에 21살 때 제자양성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서울의 조선권번에서 살풀이, 무고, 승무를, 대구의 달성권번에서는 주로 검무를 가르치며 공연활동과 후배양성에 힘썼다. 46세 때 학원을 설립하여 더 많은 후진양성을 하였으며 1962년 국악협회경북지부가 창단되면서 제1대 부지부장으로 시작하면서 3, 4, 5대 지부장으로 역임하여 대구무용계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정소산은 가야금을 비롯한 춘앵무·포구락·검무·무고 등 궁중정재와 살풀이춤·승무·장고·법무 등을 탁월하게 추고, 지도하였다고 한다. 정소산은 연구소 수업 내용에서 검무를 일명 갈춤이라 칭하고(백년옥의 증언, 2015.2.17) 처음 신입생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궁중무용을 가르쳤다고 한다(백년옥의 증언, 2010.10.11). 그만큼 궁중무용에 대한 정신과 맥을 지키려는 자부심과 애정이 컸던 것을 느낄 수 있다. 정소산류 검무는 1967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등록되기 위해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크게 인정받은 사실이었다.

포구락·무고·검무 세 개가 경북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 심의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대구지역 문화계에서 화두가 되어 조사, 연구, 심의 등에 대한

¹⁾ 본명은 정유색 鄭柳色이며 호는 소산 小山이다.

²⁾ 매일신보 1970년 '향토의 민속예술' 제복아래 기사임. 정소산의 아들 오기룡이 보관한 신문기사 내용에 월, 일이 빠져있어 날짜를 알 수 없음.

활발한 활동 등이 신문(매일 신보, 1968.11.10.),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되었지만 정소산의 작고 후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인지 등재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정소산류 검무에 대한 무형 문화재 지정 자료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적 특색 항목에서 “위의 검무는 당시 화랑관창의 용맹을 추모하기 위하여 생겼다하여 원래는 4명이 나와서 춤을 추나 6명으로 구성해서 신라 사람의 슬기와 용맹스런 민족성을 상징하는 춤”이라 되어 있으며 현황에는 “이조말기 궁중 아악부 학감 **하일우**³⁾로부터 정소산이 배워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자기의 제자들에게 보급시키고 있음(무형문화재지정 자료조사, 1969:174).” 이라고 되어있다.

정소산의 전승계보를 살펴보면 대구지역에 최묘정, 백년옥, 양영숙, 김귀덕, 김종덕, 이운도, 정해득, 윤성혜, 홍란희 등이 있다(송기영, 2013:132). 최묘정의 본명은 최복순으로 문하생 중에서 가장 춤을 잘 추었으며 정소산이 가장 아끼고 키운 애제자라 한다. 모든 춤에 뛰어났으며 정재무의 뒤를 잇게 하려 했다. 외아들과 결혼시켜 며느리와 후계자로 삼았으나(매일신문, 1974.7.21) 정소산의 작고 후 일본으로 가 소식이 끊어져 아는 사람이 없다.

백년옥은 정소산의 모든 자료와 춤을 갖고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대구무용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소산의 춤을 그대로 계승시키며 그 맥을 잇기 위해 제자양성에 힘쓰고 있다. 정소산류 검무는 현재 제자 **백년옥의 공연**⁴⁾을 통해 맥이 이어지고 있다.

Ⅲ. 정소산류 검무의 특성

정소산류 검무는 한삼춤 ➡ 선 손춤 ➡ 앉은 손춤 ➡ 앉은 칼춤 ➡ 선 칼춤 ➡ 연풍대 ➡ 제행이무 ➡ 인사로 진행된다.

정소산류 검무의 춤 구성은 6인의 무녀가 일렬로 입장하여 한삼을 뿌려 관중에 절하고 이열종대로 마주서서 한삼을 뿌리면서 상대무와 상배무를 엇갈려 앞뒤로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

3) 서류에는 학감 하규일의 이름이 하일우로 잘못 표기 되어 있음.

4) 백년옥의 발표회(1980.11.29, 2003.12.2, 2011.9.25, 2013.9.1)와 17회 서울세계무용축제 검무전(2014.10.10)을 통하여 공연되며 전승의 맥을 이어가고 있음.

이열종대로 마주서서 한삼을 벗어 뒤로 던지고 중앙에서 만나 서로 상대방의 어깨와 허리에 손을 얹고 어르며 춤춘다. 칼 앞에 앉아 전복자락을 양 손에 잡고 어른 후 오른손, 왼손에 각각 칼을 잡고 일어나 두 열이 동작을 하며 원을 만들어 연풍대를 돌고 일렬횡대로 서서 무진무퇴하며 춤을 춘다. 빠른 타령에 칼춤을 추고 팔을 위로 올렸다가 칼을 앞으로 숙여 바닥을 짚으며 인사하고 끝난다.

춤 구성에서 정소산류 검무는 다른 지역의 검무와는 구별되는 구조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다른 지역 검무의 앞은 손춤에서는 2열종대로 앉아 몸통을 회전하여 사선을 향하는 대형, 2열종대로 앉아 마주보는 대형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경기검무에서는 2열종대로 마주보고 어깨를 잡는 대형이 나타난다(임수정, 2006:159). 정소산류 검무 역시 앞은 손춤에서는 2열종대로 앉아 몸통을 회전하여 사선을 향하는 대형, 2열종대로 앉아 마주보는 대형이 나타나지만 다른 지역 검무에서는 볼 수 없는 검을 놓아주는 2명의 무녀가 등장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춤사위 진행에서 6명의 무녀가 앞은 손춤을 출 때 무대 뒤 양쪽에서 각각 3쌍의 검을 든 2명의 무녀가 함께 나와 무대 앞에 선 후 무대 앞쪽부터 무녀들 앞에 한 쌍의 검을 차례로 놓아주고 등장했던 곳으로 퇴장한다. 이는 진행에 있어 칼을 놓고 시작하는 다른 지역 검무에서 볼 수 없는 구조이다.



그림 1. 검을 든 무녀 입장

그림 2. 검을 놓아주는 무녀

그림 3. 무녀 퇴장

다음으로 특징적인 것은 춤사위라고 할 수 있는데 정소산류 검무의 춤사위에서 손칼춤과 칼사위, 발사위가 특징적이다. 손칼춤의 경우는 앞은 손춤에서 칼을 어르는 농검의 동작과 맨손으로 손목을 꺾어 칼춤사위를 표현하는 동작으로, 정소산은 이것을 손칼춤이라 부르며 강조하였다고 한다(백년옥의 증언, 2015.2.17). 이러한 특징은 남부지역 여기검무인 진주검무, 통영검무, 호남검무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 춤사위들은 공통적으로 손목을 위 아래로 꺾거나 떨어뜨려서 춤사위를 표현한다. 즉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임수정, 2006:234).

칼사위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얇은 칼춤에서는 먼저 한칼을 집어 들어 주는 외칼사위, 양칼을 집어 들어 주는 쌍칼사위가 나타나며 칼춤사위에서 머리위에서 칼을 뿌리며 돌리는 윗사위가 많이 나타난다. 특히 동작 사이에 매김새같은 역할을 하는 동작으로 4회전을 360도로 연속으로 돌리는 머리 위 칼사위(돌림사이)가 특징적인데 정소산류 검무는 제행이무에서 이 동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정소산류 검무는 동작이 빠르지 않지만 단정하고 단조로우며 특별한 기교가 없어도 머리위에서 손목 돌리기 같은 춤사위로 활달한 춤사위를 보여주고 있다.

동작적 특징의 마지막은 발사위로 연풍대에서 원의 대형으로 진행하며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오른발을 놓으며 앉고, 상체를 뒤로 젖혀서 왼발을 들어서 놓는다. 이때 발사위는 상체를 앞으로 많이 숙이고 뒤로 많이 젖혀서 상체의 회전 각도를 크게 하여 지면에서 뛰면서 이동한다. 또한 칼을 아래위로 번갈아가며 한발을 높이 들고 지면에서 높이 뛰면서 앞뒤로 교차하는 큰 동작이 나타난다. 이러한 동작으로 동작마다 힘이 있고 무사다운 기질을 춤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1. 구성에 따른 정소산류 검무의 춤사위

정소산류 검무의 춤사위						
한삼춤	선 손춤	얇은 손춤	얇은 칼춤	선 칼춤	연풍대	제행이무
· 인사태			· 땅에 대고 어르는 사위	· 머리 위 양칼사위	· 연풍대1 (머리 위 양칼사위)	· 머리 위 양칼사위
· 한삼위뿌리기		· 얇은 사위				
· 한삼평사위	· 쌍오리	· 자락사위	· 어깨매고 어르는 사위	· 머리 위 손목돌림사위	· 연풍대2 (겨드랑사위)	· 아래 위 양칼사위
· 한삼뿌릴사위	· 손춤사위	· 어르는 사위				
· 결삼사위		· 손칼춤사위	· 외칼사위			· 머리 위 손목돌림사위
· 낙삼사위			· 쌍칼사위			

마지막으로 무복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 정소산류 검무는 홍색 치마, 황색 저고리, 청색쾌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대의 경우 홍색전대를 사용하고 있다. 쾌자 둘레를 금색의 문양으로 장식하고 전대는 중앙에 금색으로 문양을 넣었다. 전립은 다른 검무들과는 다르게 테두리에 노란색과 빨간색의 종이꽃으로 장식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삼은 분홍, 백, 남, 노랑, 빨강, 연두색의 여섯 가지색이 손목에서부터 2번 반복하여 연결하여 만든 한삼을 사용한다. 무구의 경우 칼은 철제로 만들고 자루는 나무로 붉은색이며 목이 꺾이어서 돌아가는 칼이다. 칼끝부분과 자루부분에는 장식수술이 달려 있다.

이러한 무복에서 특징은 한삼의 사용과 독특한 형태의 전립이다. 한삼을 끼고 추는 춤은 과거에 정재이거나 정재무에서 파생된 춤이기 때문이다.



그림 4. 정소산류 검무 전립

특히 전립은 공작털이나 상모를 단 다른 검무와는 달리 종이꽃으로 장식되어 특이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소산이 하규일에게 배울 때부터 이어져 온 형태로 정소산류 검무만의 독특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권번의 춤선생으로는 장악원 또는 이왕직악부와 매개된 이들, 창우·광대로 불리던 이들, 그리고 관기출신의 노기들이 담당함으로써 정재와 민속춤이 함께 교습될 수 있었다(성기숙, 2001:12).

이러한 사실로 보아 민속의 형태에서 착안하여 궁중무의 형태에 맞게 미적으로 장식적인 효과를 높여 좀 더 민속적이고 여성적인 전립의 형태로 형성된 것이 아닌가 추측해본다.

Ⅲ. 정소산류 검무의 전승가치

정소산류 검무의 전승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궁중 검무의 지역전승이다. 대구의 지역 춤은 박기홍, 박지홍으로 이어지는 권번 중심의 춤과 구한말 궁중 여령정재를 담당하였던 관기 출신인 정소산에 의해 맥을 이어왔다고 볼 수 있다(백현순, 2008:102).

특히 궁중무용의 역사도 시대변화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영향을 받으며 시대 상황에 맞추어 변화하였는데 정재의 지역전승에 있어 한말 궁중에서 여령정재를 담당하였던 궁중여악출신인 정소산이 뿌린 궁중정재의 씨앗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규일에게 배웠던 검무가 정소산에 의해서 대구로 전승되면서 그 속에 궁중검무의 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승,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생강은 재인청에서 공부하고 나온 정소산의 뒤를 유일하게 이어오고 있는 백년옥에 대해서 중앙문화재가 되어야 하는데 늦은 감은 있으나 지역인

대구에서 빨리 지정이 되어 그 맥을 이어가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 춤 자체에 있어 변형이 없음을 입증하며 춤의 보존과 계승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이생강의 증언, 2011.9.25).

또한 정소산류 검무의 전승가치는 1967년 당시 경북도문화재위원인 계명대 김진균교수에 의해 경북도무형문화재로 지정 신청되고 심의되어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사실이 있어 전승가치는 충분히 그 타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둘째는 궁중춤과 교방춤 그리고 민속춤의 결합이다. 한일합방 이후 궁중의 여악제도가 폐지되면서 대구에 자리잡게 된 정소산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양성되면서 궁중정재의 전통과 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민속춤의 전통 그리고 교방의 전통이 결합되는 양상을 보인다(오레지나, 2014:89). 궁중정재의 전통은 궁중 정재무들이 공통적으로 한삼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정소산류 검무에서도 정재요소인 한삼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방과 민속춤의 전통은 정소산류 검무의 전립형태를 통해 추측할 수 있다. 궁중 정재에서 검무의 전립 형태는 흑전립에 공작털이나 상모를 단 형태인데 궁중검무가 정치이념, 전란 등을 겪으면서 한껏 성숙해진 모습으로 변화하고, 더불어 정재와 민속춤이 함께 교습되어 여기들에 의해 영향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여성스러우면서도 섬세한 느낌인 종이꽃으로 장식되어 있는 정소산류 검무의 전립을 통해 교방과 민속춤의 융합의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셋째는 지역성을 반영한 춤사위라고 할 수 있다. 경상도는 침식이 강한 지질로 산세가 험하고 내륙분지형태의 지리적 특성의 영향으로 춤의 구조가 투박하고 질퍽한 예술을 발전시키며 여성성 보다는 남성적 색채에 가까운 문화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김지원, 2008:130). 영남춤은 활달한 덧배기장단을 바탕으로 특유한 투박함과 남성미가 넘치는 신명과 흥이 절로 나오면서 활기차고 진취적이면서 춤집이 큰 춤사위로 소리보다 춤이 돋보이고 또한 양반 문화구조 속에 멋과 태가 고운 여성적인 춤사위도 함께 전승되어 복합적이고 다양한 춤문화가 발달하였다(이병옥, 2011:92). 경상도(영남)춤은 ‘땅 기운이 솟아오르는 춤(천상지향, 상향춤)과 땅에 배기는 춤(배김새춤)’이라고 일컫는다(이병옥, 2011:97).

이러한 영남춤의 특성이 정소산류 검무에서 나타나는데 다른 검무와는 다르게 지면에서 높이 뛰는 동작으로 솟아오르는 춤의 특성을 보이며 앞뒤로 교차하며 뛰는 진취적인 큰 춤사위로 남성미가 넘치는 지역의 특성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특색은 지역성과 함께 다른 검무에서 볼 수 없는 당연한 독창성을 갖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의 현상은 관련된 사건의 연속선상에서 다양한 맥락을 형성한다. 하지만 이러한 맥락을 찾아 올바르게 전승하고 보존하려는 능동적인 자세야말로 혼미한 춤 상황 속에서 주체성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자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대 사회구성원의 가치판단에 따라서 내일의 전통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인물을 중심으로 또는 기관에서 계속 연희되고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통한 지역의 토착화는 그 자체로 정재가 뿌리 내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발전적인 모습으로 봐주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구지역의 정소산류 검무는 궁중에서 여령정재를 담당하였던 궁중여악출신인 정소산에 의한 지역 전승의 형태로 첫째, 궁중검무의 지역전승, 둘째, 궁중춤과 교방춤 그리고 민속춤의 결합, 셋째, 지역성을 반영한 춤사위 등을 고려할 때 전승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정소산류 검무는 앉은 손춤에서 검을 놓아주는 2명의 무녀가 등장하는 춤의 구조와 앉은 손춤에서 맨손으로 손목을 꺾어 칼춤사위를 표현하는 손칼춤과 4회전을 360도로 연속으로 돌리는 머리 위 칼사위(돌림사이)가 특징적이다. 그리고 지면에서 높이 뛰면서 이동하는 활발한 발사위가 특징적이라 하겠다. 또한, 종이꽃으로 장식된 전립은 다른 검무에서 볼 수 없는 정소산류 검무만의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전립으로 시대적인 흐름의 변화와 융합의 가능성을 추측 할 수 있다.

궁중무의 한 맥으로 지역성을 토대로 뿌리내려진 검무에 대한 연구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오늘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정소산류 검무의 의미와 가치는 재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지원(2008), "지역성과 관련한 한국 춤의 언어문화학적 연구법 고찰-대구 지역 권영화 살풀이를 중심으로-", 한국공연문화학회, **공연문화연구**, 제17집 0호, 107-134.
- 매일신문, 1974년 7월 21일, 5면.
- 매일신보, 1970. 향토의 민속예술.
- 매일신보, 1968년 11월 10일.

- 무형문화재지정자료조사(1969), 경북교문1081.6-2, 문화재 관리국.
- 백현순(2008), "대구지역 한국 춤의 전승과 흐름", 한국체육사학회, **한국체육사학회지 제13집 3호**, 97-109.
- 성가숙(2001), "일제강점기 권번과 기생의 전통춤 연구", 한국민속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제2001권 1호**, 1-13.
- _____(2005), **한국 춤의 역사와 문화재**, 서울 : 민속원.
- 송기영(2013), "정재(呈才) 전승양상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오레지나(2004), "대구지역 수건춤의 유형적 특성과 전승 가치",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5권 3**, 79-90.
- 이병욱(2011), "영남춤의 생태민속학적 고찰", 한국무용연구학회, **한국무용연구지 제29권 2호**, 81-103.
- 임수정(2006), "한국 어기검무의 예술적 형식과 지역적 특성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백년옥(2015), 개인 면담, 2015년 2월 17일